



로씨야 려객기 사고 관련

습근평, 로씨야 대통령 뿌쨌에게 위문전보

24 일, 국가주석 습근평은 로씨야에서 려객기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인원 사상이 초래된 것과 관련해 로씨야 대

통령 뿌쨌에게 위문전보를 보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귀국 려객기 한대가 로씨야 아무르주에서

사고가 일어나 중대한 인원 사상이 초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나는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조

난자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조난자 가족에게 진지한 위로를 드린다. / 신화사

무형문화유산, 연변에서 독특한 매력 꽃피운다

독특한 운치가 있는 가야금의 음률, 우아하고 발랄한 조선족 장고춤, 섬세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통소 연주 등 무형문화유산이 민족풍정으로 가득한 터전에서 화려하고 다채로운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런 무형문화유산들은 독특한 지역적 색깔을 간직한 채 연변인민들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을 담고 있다.

이 몇년간,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보호위주, 구조우선, 합리적 리용, 전승발전'의 사업방침을 견지하고 민족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며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를 중시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도문시에 있는 중국조선족무형문화유산전시관에는 조선족 민간무용, 전통악기 제작공예, 전통음악, 전통문학이야기, 민간체육놀이, 민족절절, 음식문화, 복식문화 등 다채로운 코너들이 마련되어있다. 풍부한 전시품들과 시대적 정취가 담긴 사진들, 그리고 세밀하고 상세한 소개는 선명한 조선족 민족 특색을 보여주면서도 중화민족 전통문화의 뚜렷한 맥락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곳을 거닐다 보면 마치 력사의 강에서 헤엄치는 듯하다. 모든 전시품들이 세월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고 모든 장면에서 민족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년간 이 전시관은 학교 및 사회구역과 함께 다채로운 무형문화유산 선전, 전시, 공연 등 활동들을 꾸준히 조직해왔다. 이런 활동을 통해 연변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항목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한층 높였고 군중들의 문화적 동질감과 민족적 자부심도 한층 제고시켰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지역 특색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생태문화의 진지를 구축했다. 중국조선족무형문화유산전시관, 안도장백산무형문화유산전시중심 등 전시시설들을 건설하여 선전과 전승의 진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동시에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 전승기지와 전승소(전시소)를 건설하여 대표성 항목의 보호, 전승, 활용을 강화했다. 현재 연변조선

족자치주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생산성 보호시범기지 1개, 성급 전승기지 7개와 성급 전승소 11개, 주급 전승기지 37개와 주급 전승소(전시점) 22개, 주급 전승체험기지 12개를 보유하고 있다. 왕청 '상모춤의 고향', 훈춘 '통소의 고향', 도문 '장고춤의 고향', 룡정 '가야금의 고향' 등 특색문화향진과 '무형문화유산'거리, '무형문화유산'작업실을 육성했다.

6월 21일, 연길시 중국조선족민속원은 즐겁고 화목한 분위기로 차넘쳤다. '중국 조선족 환갑잔치' 민속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던 것이다. '조선족 환갑잔치'는 조선족의 중요한 잔치로 생일 축하와 로인 공경의 풍습에서 유래했으며 2008년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행사장에는 맑고 감미로운 조선족 민속악기 연주가 울려 퍼진다. 화려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12명의 로인들이 천천히 입장해 풍성하게 차려진 환갑상에 자리했다. 자녀, 친척

등 후배들이 차례로 로인들에게 술잔을 올리고 큰절을 하며 진심어린 축복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반 행사는 조선족 전통 레의 문화의 풍부한 내포를 보여주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연변 무형문화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매개체를 강화하여 문화 전승의 새로운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구축했다. '한개 도시 한개 브랜드' 축제활동 조직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연길 조선족단오절민속문화관광축제, 화룡진달래문화관광축제 등은 이미 브랜드 문화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무형문화유산의 학교, 사회구역 진입' 등 활동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우수한 전통문화가 일상 생산생활에 스며들도록 했다. 조선족 상모춤, 가야금 예술, 해금 예술, 판소리, 만족종이공예 등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항목이 이미 중소학교에 깊이 보급되었다. 전

승기지의 건설을 통해 전승 활동을 널리 전개하고 후비 인재를 양성하며 우수한 민족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했다. 선전과 전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명절과 관광 성수기에는 조선족 상모춤, 장고춤 등 무형문화유산 공연을 조직해 광범한 군중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족문화가 군중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했다. 무형문화유산의 관광지 진입을 추진했는데 조선족 전통 복장, 조선족 전통 떡 제조, 조선족 막걸리 양조 기술 등이 중국조선족민속원, 돈화중성조선족민속촌 등 인기 관광지에 들어가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문화 체험을 선사하고 있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1개 항목(중국 조선족 농악무)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명부'에 등재되었고 국가급 목록에 19개 항목, 성급 목록에 90개 항목, 주급 목록에 185개 항목이 등재되었다.

/ 길림일보



연변대학 남문에서 펼쳐진 무형문화유산 '상모춤' 공연은 연길 향풍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취업률 4.8% 포인트 제고

일전 개최된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장애인 취업 촉진 3년 행동방안(2022—2024)> 실시이래 전국 도시와 농촌 장애인 신규 취업자수는 164만 8,000명으로 취업률이 4.8% 포인트 상승했다.

중국장애인연합회 부주석이며 브리사장인 리동매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지난 3년간 도시와 농촌의 장애인 연 142만 7,000명을 실명으로 양성해 장애인의 취업 기능을 한층 향상시켰다. 대학교 장애인 본기 졸업생은 연속 5년간 100% 봉사서류를 구축했고 취업 의사가 있는 장애인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연속 5년간 85%를 초과했다.

첫번째 3년 행동의 연속으로 국무



원 판공청은 최근 <장애인 취업 촉진 3년 행동방안(2025—2027)>을 발표했다. 방안은 중국장애인연합회가

30개 부문, 단위와 공동으로 제정했으며 10가지 행동을 실시하게 된다. 중국장애인연합회, 국가발전및개혁

위원회,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농업농촌부 관련 책임자들이 국무원 정책 브리핑에서 두번째 3년 행동방안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중국장애인연합회 교육취업부 주임 임정빈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두번째 3년 행동방안은 '맞춤형 지원'으로 추진되며 장애인들의 일자리 유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적합성', '안정성'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라 관련 부문과 단위 및 지방 각급 정부는 직책에 따라 책임을 분공하고 장애인 공공봉사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장애인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장애인의 비교적 충분하고 질 높은 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 신화사

제 15 회 동북아박람회 8 월 27 일 장춘서



/ 자료사진

22일, 중국과 동북아 국가간의 우호왕래와 실무협력을 촉진하고 중국과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무역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제 15 회 중국 - 동북아박람회 특별 소식공개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상무부 부부장 언둥, 길림성 부성장 양안제,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리홍건이 소식공개회에 참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상무부와 중국무역촉진위원회, 길림성인민정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동북아와 손잡고 개방으로 미래를 열자'를 주제로 한 제 15 회 중국 - 동북아박람회 오는 8월 27일에 장춘에서 개막된다. 이번 중국 - 동북아박람회는 중앙주변사업회의 개최후 처음으로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중요한 경제무역 행사이다. 이번 동북아박람회는 아래 다섯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책 소통을 더욱 중시하고 동북아지역 고위층 협력 소통 경로를 힘써 구축한다. 둘째, 융합발전을 더욱 강조하고 동북아 여러 국가 간에 자원을 공유하고 기회를 공유하며 성과를 향유하도록 추진한다. 셋째, 생산과 공급망 협력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신에너지, 대건강, 자동차 등 산업기술 교류와 대상 접목을 심화하며 지역 산업의 협동발전을 추진한다. 넷째, 인문교류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다원화 교류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구축한다. 민간 문화교류를 일층 증진하고 다원화 문화교류를 심화하며 지역 인문 융합을 추진한다. 다섯째, 소비진작을 더욱 뚜렷하게 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창의로 새로운 소비를 이끌며 고품질 제품과 봉사로 유효한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 소비시장에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한다.

이번 박람회는 박람회 설계에서 '현대화산업관', '개방협력관', '신소비신봉사관', '국제및향향오문대만

상품관' 등 4대 주제 전시관과 '인삼꽃사슴전시구', '길림음식문화체험전시구' 등 2대 특색 전시구를 포함한 '4+2' 구조를 조망한다. 활동 부문에 있어서 '1+14' 활동을 뚜렷하게 한다. '1+14' 활동은 개막식, 전시관 관람 등 4개 부분을 포괄하는 '1'대 주제 활동을 말하는데 각국 정부 수뇌들이 모여 협력의 공감대를 응집한다. '14'대 주제 활동은 동북아지방협력원탁회의, 로씨야 비즈니스의 날, 중일 수소에너지산업연결회, 중한 경제무역교류회, 개발구고품질발전교류회 등 지역협력, 경제무역교류, 인문교류, 산업연결 활동을 말하는데 다분야의 전방위적인 협력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처음으로 '현대화산업관'을 설치한다. '현대화산업관'에는 세계 500 강, 중국 500 강 기업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기업들이 모여 전통산업의 새로운 성과를 전시한다. 신형 공업화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길림제조' 선두 제품과 전통 기간산업의 스마트화, 녹색화 개조를 통한 첨단 돌파 시범 사례를 전면적으로 전시한다. 신질생산력의 성과를 두드러지게 전시한다. 신에너지, 신장비, 신소재, 신의약 등 돌파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최첨단 기술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한다. 혁신생태계 동 체계를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최첨단 기술기업, 제조업 단일 종목 우승 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기업 등 다원화 혁신주체들이 고품질 발전의 과학에너지력을 부여하는 원동력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이미 42개 국가와 지역 및 전국 27개 성(구, 시)의 8,000여명 전시상이 참가 의향을 확정지었고 2,796개 부스의 설치가 확정되어 전체 전시 작업의 80%를 완수했다. / 길림일보

윤 6 월, 21 세기 총 6 번 출현!

일부 세심한 대중들은 7월 24일이 음력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다음날 7월 25일이 음력 7월 1일이 아닌 윤년 6월 1일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는 어떻게 된 일인가?

중국전문화회 회원이자 천진시천문학회 리사인 양정은 음력은 우리나라 전통 력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달이 지구를 도는 주기와 지구가 태양을 도는 주기를 고려하여 제정된 달력으로 음양합력이다.

양정의 소개에 따르면 윤달의 규칙은 무작위가 아니라 24절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24절기는 지구가 태양을 둘러싸고 운행하는 궤도, 즉 황도로 15도 간격으로 24분하여 12개의 절기와 12개의 중기(中氣)로 나누고 이 2가지가 서로 엇갈리게 배열한 것이다. 음력력법의 규정

에 따르면 모든 음력달에 모두 중기가 있고 만약 어느 달에 중기가 포함되지 않으면 지난달의 윤달로 간주하여 치운이라고 부른다.

올해 7월 22일(음력 6월 28일)은 중기 대서이며 다음 중기 처서는 8월 23일(음력 7월 1일)이다. 이중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음력달중 립추만 있고 중기가 없기 때문에 이 음력달을 윤달로 정했다. 지난달이 6월이기 때문에 이 윤달을 '윤 6월'이라고 하며 총 29일이다.

양정은 윤 6월은 드문 일이 아닌바 이번 세기의 100년 동안 총 6번 출현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각각 2017년, 2025년, 2036년, 2055년, 2074년과 2093년에 윤 6월이 출현한다. / 인민넷 - 조문판